

[로스쿨 합격기]

## 입시에는 정해진 답은 없다

남 원 경

• 북경대학교 법학원 졸업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0기 입학예정



### I. 들어가며

“영남대 로스쿨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합격문자를 받고도 아직도 얼떨떨한 이 시기에 합격수기를 쓰려하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합니다. 사실 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여러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복잡했고 어찌 보면 외로웠습니다. 우선 저는 국내 대학교가 아닌 중국의 북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간 유학이지만 2년만에 대학에 입학하여 언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읽어야 하는 책과 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많은데 뜻을 해석하기 전에 중국어부터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4년 동안 끊임없이 전투를 치뤘던 느낌입니다. 졸업 후 바로 국내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법무

팀에서 프로젝트 법률검토와 계약검토도 하면서 법과 함께 했습니다. 종합상사였기 때문에 패션 및 호텔 등 소비재사업부터 중국본부의 서비스사업까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분야가 다양하지만 이 모든 사업의 중심을 이어주는 곳에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저는 단순히 실무진의 지식으로는 변호사라는 벽을 넘지 못함을 다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갈망이 퇴사라는 큰 결정을 하여 로스쿨 수험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II. 리트(LEET)를 준비하며

우선적으로 저는 아래와 같이 저만의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 1. 추천도서는 각 분야별로 1권이상 읽기

언어이해나 추리논증에는 다양한 제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익숙한 제재면 편하게 읽히지만 낯선 개념이 등장하면 문제를 읽는데에만도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전 책을 통해 경제적, 과학적 개념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또한 상대성이론 같은 생소한 개념에는 책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쉽게 풀어낸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철학적인 이론이나 법학적 개념은 메가로스쿨 윤상근 선생님의 개념지식특강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념적인 틀이 잡히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제재를 풀어내는데 당황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2. 기출문제는 하루에 1회씩 꾸준히 풀기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풀어볼 문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PSAT부터 수능기출 문제, 학원모의고사 등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리트를 풀어내야하는 수험생에게는 리트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게 없는거 같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해이해지기 긴시간 동안 기출문제를 풀어나기에는 해이해지기 쉽기 때문에 꼭 스터디를 찾아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만 스터디별로 운영방식 등이 차이가 크게 나기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 3. 일주일의 6일은 혼신을 다하여 공부하고, 하루는 완전히 쉬기

LEET는 외우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양치기로 해결되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컨디션에 따라 일주일만이라도 점수 등락이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회사생활을 한 뒤 시작한 수험생활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버릇을 들이는데 다소 오래 걸린듯합니다. 특히 항상 교실이나 스터디룸에 앉아서 글만 읽다보니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놀기에는 괜히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해서 수험초기에는 공부도 스트레스도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슬럼프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저에게 완전한 휴가를 주었습니다. 정말 하루 동안은 한글자도 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스스로에게 준 휴가날에는 혼자서 전시회를 보러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한강도 가서 하늘구경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제 모의고사 성적은 안정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숨이 쉴 수 있게 해주니 수험생활 내내 큰 슬럼프가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이 막 다가오는 7~8월에는 소위 멘붕이 온 친구들도 많았으나 제 스스로는 오히려 덤덤하게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4. 언어이해

언어이해는 정말 끝까지 정답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고 심도 깊은 지문을 단시간에 읽고 찾아내고 확신을 갖고 답을 찾기까지 저의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지문을 다 읽고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문제에 가서 해매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문 이해'보다는 '선지선택'에 더 집중했습니다. 새로 풀어본 문제는 바로 채점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복습하는 버릇을 들였습니다. 언어지문의

경우 문제를 풀 때 가장 집중력 높게 읽게 되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 “왜 틀렸는가?”에 대해 고민을 깊게 했습니다. 오답의 선지 하나하나에 답이 되는 근거문장을 찾고 틀리는 근거를 그 옆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오답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다른 색으로 크게 써서 표시하고, 따로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매 모의고사를 보기 전, 수첩의 메모를 확인하고 활용했습니다. 이 수첩은 LEET 시험일의 저에게 쓰는 편지와 같았으며 실제로도 시험 당일에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습방법에 메가로스쿨의 윤상근 선생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거나 그 외의 시간에 제가 작성한 오답의 해설이 맞는지 아닐 경우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조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맞는지 흔들릴 때도 많이 지지해주셔서 스스로에게 확신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제 방법이 모두에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면서 친한 선생님 또는 선배와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도 큰 도움이 되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서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서로의 마인드컨트롤을 위해서는 꼭 적극적으로 상담 받길 바랍니다.

## 5. 추리논증

추리논증에 관해서는 내려놓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의 큰 맥락을 갖고 3 문제를 풀 수 있는 언어이해와 달리, 추리논증은 각 문제당 하나의 주제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머릿속의 스위치를 급격하게 바꿔야 하기에 피로도도 더욱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그렇게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맞추겠다는 목표는 저로 하여금 조금하게 하여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리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좀 더 내려놓고 풀어서 맞춰야 할 문제를 덜어 오히려 풀어진 문제에서의 정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어이해보다 추리논증에서 본인의 약한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형에 맞추어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어 먼저 풀어내고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다른 문제를 해치워나감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리게임 중 참말/거짓말 문제나 줄세우기 문제는 오히려 가장 재미있었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가장 먼저 풀었습니다. 언어이해의 여파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시간에 추리논증을 풀어내야 하기에, 추리논증으로의 마인드셋하게하는 논리게임이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자신있거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유형을 우선적으로 풀어내는 전략은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확신을 가지며 문제를 풀면 자신감도 생겨 다소 약한 유형에도 주눅들지 않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 III. 스터디의 운영

학원수업 외에 스터디는 두명에서 진행하는 작은스터디와 6명에서 진행하는 언어스터디로 2개 참여했습니다. 언어스터디는 매주 2번씩 모여 시간에 80분동안 연도별 LEET와 M/PEET를 풀고, 틀렸던 부분에 대해 정답을 찾아내는 법과 오답을 고르게 된 생각의 길을 토론하였습니다. LEET는 지식을 외우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 혼자만의 생각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답을 찾는 여러 방식을 보는 점이 가장 좋

왔습니다. 물론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스터디원의 방식을 100% 도입할 수는 없지만 더 좋은 방식을 찾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터디는 진행하기 전에 운영방법에 대해 의견조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터디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각 회독을 시작하기 전에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조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행시간, 분량과 규칙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한 뒤 그 계획에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변경하는 것보다 계획을 짜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소 수정하는 방법 덕분에 6개월동안 꾸준히 기출문제를 4회독 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작은 스터디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간만 정해두고 각자 해야할 과제를 해내는 생활스터디였습니다. 언어이해는 기출문제를 제재별로 10지문씩 풀었으며, 추리논증은 조호현 선생님의 'PSAT for LEET'와 '기출문제 심층분석'을 풀었습니다. 다른 스터디와는 조금 다르지만 시간과 양은 같지만 각자가 푸는 문제는 다르게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60분동안 추리문제는 20문제 풀기'라고 미션을 수행한다면, 20문제의 구성은 각자가 정했습니다. 제가 강화/약화문제 15문제에 논리게임 5문제를 푼다면 스터디원은 논쟁 10문제와 법적추리10문제를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 다른 부분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토론보다는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터디 방식의 최고 장점은 자기분석할 시간과 자료가 쌓이며 보충해 낼 시간을 만들 수 있게합니다. 보통 학원과 스터디를 하고 나서 자기 공부할 시간이 적어지거나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4시간동안 정해진 미션을 수

행한다는 느낌으로 자습보다 훨씬 높은 집중도가 유지되면서 자기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 IV. 공인영어시험

공인영어시험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거의 모두가 만점을 받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더욱 영리하게 해당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텡스, 토플, 토익의 선택권이 있지만,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토익을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타지생활을 오래했기에 아카데미함이 강한 토플이나 텡스용 단어를 추가적으로 많이 외워야하는 텡스는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토익으로 점수를 올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년도의 모집요강은 모든 학교가 배포했기에 각 학교의 만점 하한선을 찾았습니다. 어차피 990점이나 960점이나 동일한 만점이라면, 960점의 점수를 달성하면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쏟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 또는 저처럼 모든 학교의 요강을 찾아본 뒤 적당한 점수만을 위해 시간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영어시험은 가장 큰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은 LEET에 쏟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집 10회 가량을 아침 9시부터 시간에 맞추어 풀었습니다. 오답은 표시하고 왜 틀렸고 필요한 문법요소나 단어를 짧게 문제 옆에 메모했습니다. 단어의 경우 해설에 있는 단어 중 익숙하지 않거나 헷갈리기 쉬운 단어도 해당 문제에 메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답들을 위해 오답노트를 별도로 만들기 싫었기 때문에 Part 5문제나 단어장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에버노트에 모았습니다. 사진형태로 저장

도 편했으며,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잠깐씩 보면서 체크하기 좋았습니다. 저는 영어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쏟기보다는 영리하고 편하게 점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어점수는 적어도 2월 늦어도 3월까지의 점수를 만들어줘야 LEET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영리한 방법으로 적당한 점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하시기 바랍니다.

## V. 자기소개서와 면접준비

### 1. 자기소개서

LEET를 끝내고 바로 윤상근 선생님의 자기소개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글을 쓰기에는 저 혼자 생각하여 만들어 내기보다 더 좋은 주제와 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 선생님께서는 각자 인생의 일대기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19살 대학 입학 이후 지금까지 해왔던 일, 영향이 컸던 변화 등등을 적어나가며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했기에, 제 장점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문항과 글자수들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왜 로스쿨에 가고 싶은지,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수험생 스스로에게도 본인을 돌아보며 정말 이 법조인의 길을 왜가려는지 돌아보며 마음을 다지게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하게 한 이유와 본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어떠한 모습의 법조인이 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진정성 있고 조리있게 써내려간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어본 지인이 있다면 굳이 유료로 첨삭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사를 위한 자기소개서와 입학에 대한 자기소개서도 같은 본인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지만 써나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입시용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어본 분께 꼭 첨삭 받으시길 바랍니다.

### 2. 면접준비

사실 저 같은 경우 크게 면접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남대 로스쿨의 경우 특수한 형태로 면접을 진행하기에 스터디를 통해 준비하였습니다. 수험생과 면접위원간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학교와 달리, 영남대 로스쿨은 수험생간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인의 토론으로 진행되는 스터디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터디는 그 전날 주제 2개를 정하고 면접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15분의 준비시간 각 3분의 3번의 발언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해당학교의 면접을 경험해 본 수험생이 함께하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재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저는 김종수 선생님의 면접책을 활용하였습니다. 각 학교별 기출문제도 나와 있고, 토론할만한 좋은 주제가 모여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면접을 위하여 사실 많은 자료를 다 읽기에는 지루하고 효율적이지 않는 방법 같습니다. 그보다 본인만의 논거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자료나 시사상식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그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면접 당일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해 단 한번의 대답을 하지만, 실제 면접위원들께서는 수십번의 답을 듣습니다. 너무 뻘하거나 일차적인 답변과 논거보다는,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본 경험을 논거에 녹여 내어 주장함이 자기 자신의 매력을 더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VI. 마무리하며

입시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입시에는 정해진 답은 없다.” 였습니다. LEET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하는 사람들을 보며, LEET가 전부일 것 같으면서도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학점, 다 같이 높은 점수인 공인영어점수보다는 자신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 등이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을 수 있기에 자신을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 모두가 다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만 뒤쳐지는 것 같고 부족한 느낌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힘들고 불안해하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 입시를 헤쳐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빡빡하고 불안한 준비기간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마음과 결심을 다시 돌아보고 다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의 정도를 줄이면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간다면 원하시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부족함이 많고 가야할 길이 멀지만 수험생 여러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